

# 다니엘서 - 번호 180

로마, 마카베오, 그리고 현대의 예언적 접점: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연구

Jeff Pippenger

2024-04-10

우리아 스미스는 "로마는 기원전 162년에 동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역사가들은 그 연대를 기원전 161년으로 본다. 그리고 스미스도 같은 책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원전 161년을 언급한다. 나는 기원전 162년에 대한 이 언급이 옳기라고 생각한다.

"23절과 24절에 이르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의 동맹, 곧 기원전 161년의 이편으로 내려오게 되며, 로마가 세계적 지배권을 획득한 시대에 이르게 된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273.

11절과 12절은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이 이끄는 셀레우코스 제국과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 왕이 이끄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사이에서 기원전 217년에 벌어진 라피아 전투의 승리와 그 여파를 서술한다.

파니온 전투는 17년 뒤인 기원전 200년에 다시 셀레우코스 왕국과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사이에서 벌어졌다.

마카베오 반란은 기원전 167년에 시작되었으며, 유대인의 종교 관습을 억압하고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려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시도에 맞선 유대인의 반란이었다.

예루살렘 제2성전의 재봉헌은 하누카 때 기념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원전 164년에 일어났으며 23절에 나오는 '동맹'보다 3년 앞선다. 이 사건은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의 종교 관행을 금지했던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끄는 셀레우코스 제국 군대에 맞서 마카베오가 성공적으로 벌인 군사 원정 뒤에 일어났다. 하누카로 기념되는 그 승리 직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사망했으며, 그 시점부터 역사에서 시리아 세력의 쇠퇴가 시작되었다.

기원전 200년(이는 파니온 전투의 시기이기도 했다)에 로마는 처음으로 다니엘 11장의 예언적 역사에 개입했다. 거기에는 그 환상을 입증하는 상징이 있다. 그 역사에서 드러난 의도적인 영향력은 막후에서 조종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세벨의 일을 가리킨다. 남편 아합이 엘리야에 의해 그녀의 선지자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볼 때,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있었다. 헤로디아는 딸 살로메가 헤롯을 유혹한 헤롯의 생일 잔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의 역사에서 두로의 음녀로 대표되는 교황권은 상징적인 칠십 년이 끝날 때까지 잊혀진다. 그런 다음 그녀는 땅의 왕들에게 기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기원전 200년은, 1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머지않아 닥쳐올 일요일 법령 직전에 말세에 그녀가 왕들에게 공개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때를 예표한다.

기원전 161년에서 158년 사이 유대인들의 "동맹" 이전에, 마카비파는 성전을 재봉헌했으며, 이는 기원전 164년에 하누카로 기념된다. 그로부터 3년 뒤, 여전히 시리아인들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카비 유대인들은 지원을 구하기 위해 로마에

손을 내밀었다. 그때 맺어진 로마와의 "동맹"은 하나님의 말세에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예언적 시험이 된다.

역사 기록은 '동맹'이 일어난 시점을 기원전 161년으로 지목하지만, 선구자들은 그 사건을 기원전 158년으로 지목한다. 밀러가 옳았는가, 아니면 현대 역사가자들이 옳은가? 밀러는 기원전 158년에 666년(666)을 더해 'the daily'가 제거된 해인 508년에 도달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동맹을 기원전 158년으로 비정하는 역사적 근거를 찾기란 극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16절은 일요일 법령이지만, 그 이전의 역사에서 로마는 기원전 200년에 그 환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 마카비 혁명은 기원전 167년에 모데인에서 시작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기원전 164년에 성전을 다시 봉헌하였다. 그런 다음 기원전 161년부터 기원전 158년까지 유대인들은 로마 세력과 언약을 맺는다. 기원전 161년에서 기원전 158년까지는 그 "동맹"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였던 기간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해는 역사가들의 증언과 일치하게 그 "동맹"을 규명하며, 또한 주의 손의 지도를 받아 작성되었으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도표와도 일치한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 유대와 로마와 같은 고대 국가들 사이의 조약 협상 과정은 구체적 상황, 외교 관례, 권력 관계에 따라 달라졌다. 대개 이 과정은 한쪽이 상대와 조약이나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유대와 로마의 경우, 유다가 정식 동맹을 제안하기 위해 로마에 먼저 접촉했다.

제안을 전달하고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외교 채널이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로마의 지도자나 대표들을 만나도록 대사나 사절을 파견하는 일을 반드시 포함했을 것이다. 협상이 시작되면 양측은 제안된 조약의 조건을 논의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는 일련의 회의, 외교 서한의 교환, 그리고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개자나 중재자의 참여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협상 동안 각 측은 상대가 제시한 조건을 검토하고, 맞제안을 내거나 일부 조건의 수정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는 신중한 심의, 자문가들과의 협의, 제안된 조약의 잠재적 이점과 단점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었을 수 있다.

양측이 조약의 조항과 조건에 합의하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 공식 문서가 마련된다. 그 다음 조약은 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로마의 경우에는 원로원이나 다른 통치 기관의 승인을 포함할 수 있다. 유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약은 그 지도부나 통치 평의회 승인을 필요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준이 이루어지면 조약은 시행되고, 양측은 그 조항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조약에 명시된 다양한 형태의 협력, 상호 방위 협정, 교역 관계, 또는 기타 외교적 교류를 수반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에는 동지중해 지역에 있는 유대에서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로마로 이동하는 일은, 고대 교통수단의 한계를 고려하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유대와 로마 사이의 거리는 선택한 구체적 경로에 따라 대략 1,500~2,000킬로미터(930~1,240마일)였다. 고대에는 해상 이동이 육상 이동보다 대체로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바다 여행은 우세한 바람의 영향에 좌우되었다. 유대의 항구에서 이탈리아의 항구(예: 로마의 항구인 오스티아)로 배를 타고 가는 데에는 풍향, 해류, 사용한 선박의 종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몇 주가 걸릴 수 있었다.

유대에서 로마까지의 육로 여행은 더 느리고 험난했을 것이다. 여행자들은 산, 계곡, 강 등 다양한 지형을 가로질러 나아가야 했고, 산적이거나 적대적인 지역과 같은 장애물에도 맞서야 했다. 도보 또는 마차로 이동할 경우 수개월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 시간은 도로의 상태, 숙소와 휴게 지점의 이용 가능 여부, 도중 휴식과 보급의 필요성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다.

마카비 유대인들이 로마와 동맹을 맺고자 했을 때, 그들은 로마에 사절들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그 사절들이 로마 당국의 접견을 받은 뒤에는 일정한 협상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추론에 따르면, 일단 조약이 공식화되면 그것을 승인을 위해 유대로 가져가야 했고, 이어서 아마도 유대인들의 수락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로마로 가져가야 했을 것이다. 그 시기에 동맹을 형성하는 과정이 1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믿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동맹"이 기원전 161년부터 기원전 158년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견해는 16절의 일요일 법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지목하는 다른 예언의 맥락과도 부합한다.

모든 역사가들이 마카비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는 한 "동맹"이 기원전 161년에 유대에서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유대인들이 기원전 167년에 반란이 시작된 이래로 싸워 오던 시리아인들에 대항할 지원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 반란은 유대인 제사장 맛다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 특히 유다 마카비가 셀레우코스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강요한 헬레니즘화 정책에 저항하려 한 노력에서 촉발되었다. 이러한 정책에는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을 억압하고 그리스의 관습과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란의 도화선은 모데인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곳에서 마타티아스는 그리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칙령을 거부했다. "모데인"은 히브리어 단어 "모디아"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선언하다" 또는 "항의하다"를 뜻한다. 항의의 과정에서 마타티아스는 제사를 막 올리려던 유대인 배교자를 죽였고, 그는 아들들과 함께 산으로 도피해 셀레우코스 군대에 맞선 게릴라전을 시작했다. 마카비 반란은 수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마카비들은 셀레우코스과 그 동맹세력과 수많은 전투를 벌였다. 병력과 장비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마카비들은 여러 차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셀레우코스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의 종교를 강요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인들은 마지막 날들의 세계주의자들을 상징한다. 그들의 종교는 현재 미국과 전 세계에 강제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각성주의(woke-ism)로 표현되며, 이는 은행 체제와 주류 언론, 교육 중심지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의 강제적 유입을 통한 국가적 구별의 해체를 추진하는 세계주의 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종교를 강요하고 있을 때, 그의 시도에 협력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 마카비가문은 그리스의 종교에 저항하고 있던 배도한 유대인들의 한 부류를 상징하지만, 그리스 종교의 강요 작업을 지지하고 있던 또 다른 부류의 배도한 유대인들도 있었다.

16절은 곧 다가올 주일법과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을 말한다. 그 역사에 앞서 13-15절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는 40절의 세 전투가 10절(1989), 11-12절(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파니움 전투에서 벌어진다. 파니움 전투는 두 뿔을 가진 땅의 짐승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종교적·정치적 철학을 제압하는 전투를 상징한다.

그 전투에서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은 11절과 12절에 묘사된 푸틴의 승리와 그에 뒤이은 붕괴의 여파에 대처해야 한다. 그는 러시아 붕괴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나토 또는 유엔과 동맹을 맺을 것이며, 그 동맹의 전개 과정에서 파니움 전투에서 유엔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40절의 세 번째 전투는 40절의 첫 번째 전투와 같을 것이다. 소련이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힘에 굴복해 붕괴했듯이, 유엔의 글로벌리스트들은 고르바초프의 소련 개혁 노력의 핵심 요소였던 '페레스트로이카'를, 비록 그것이 결국 소련 체제의 와해와 최종적인 해체에 기여했음에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전투는 첫 번째 전투로 예시되며,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트럼프는 경제 및 군사적 압박을 통해 유엔에 '페레스트로이카', 즉 구조조정 또는 개혁을 강요할 것이다. 그 구조조정은 열 왕의 체제인 유엔의 정점에 미국을 올려놓을 것이다. 그 전투에서 교황권은 역사에 등장하여, 트럼프가 그때 정복하고 있는 그 체제의 수호자라고 주장할 것이다.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트럼프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랬듯, 반드시 대응해야 할 내부의 내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내전은 미국 내에서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배교한 파벌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다. 한 부류는 워크이즘의 종교와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대표되며, 이들은 양당에 걸친 진보적 글로벌리스트들이다. 다른 부류(MAGA주의)는 자신들이 진정한 개신교 신자라고 자처하지만, 그 지위는 1844년에 잃었다.

대통령 진영은 MAGA주의로 대표되며, 진정한 개신교와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릇된 주장에 기반한다. 각성주의의 주장은 '대지의 어머니'와 '뉴에이지'라는 종교, 그리고 헌법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낡은 사상이 아니라 현행 사회 규범과 현실에 비추어 적용된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맛타티아(트럼프)는 기원전 167년 모딘에서 시작된 반란으로 표상되는 바와 같이, 미국 내 글로벌리스트-진보 성향의 민주당 세력의 시도를 종식시킬 것이다. 그 후 트럼프는 마카비가 성전을 재봉헌했던, 하누카로 기념되는 기원전 164년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다. 그리고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로 표상되는 기간에 트럼프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사이의 부정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교황권의 형상을 세우기 위한 최종 공세를 시작할 것이다. 기원전 158년에 머지않아 시행될 16절의 일요일 법이 집행됨에 따라 그 동맹이 확립될 것이다.

다니엘 11장은 먼저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권을 장악하는 방식을 밝히고, 이어서 동일한 역사 속에서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밝히는 하나의 서술로 그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고 확장한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교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는 데 맞닥뜨린 세 가지 장애물이 제시된다. 16절에서는 기원전 65년에 시리아가 이교 로마에 의해 정복되고, 이어 기원전 63년에 유대가 폼페이우스에 의해 정복되었음을 보여 준다. 16절은 로마가 영화로운 땅에 서게 되는 때를 지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장 41절의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예루살렘 내부에서 내전이 벌어지던 가운데 그 정복 사건이 기원전 63년 [1863년과 평행]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폰투스의 왕 미트리다테스에 대한 원정에서 폼페이우스가 귀환하자, 두 경쟁자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틀루스가 유대의 왕위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틀로스”라는 이름은 둘 다 그리스어 기원을 지니며, 특히 헬레니즘 시대와 하스몬 왕조 시기의 유대 역사라는 맥락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다. “히르카누스”는 그리스어 “Hurkanos”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아마도 페르시아어에서 “늑대”를 뜻하는 “hurkan”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히르카누스는 여러 하스몬 통치자들이 지녔던 이름이었다. “아리스토틀로스”는 “가장 훌륭한 조언자” 또는 “최고의 충고자”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틀로스 역시 여러 하스몬 통치자들이 지녔던 또 하나의 이름이었다. “히르카누스”와 “아리스토틀로스”는 둘 다 하스몬 시대의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관련된 이름들이다. 그들은 유대에 있던 하스몬 왕국의 통치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통치자들이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하스몬 왕국의 예언적 후손들과 그 대표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두 정치 정파는 모두 그들의 기원을 기원전 167년 모딘으로 대표되는 봉기의 시기로 돌렸다. 폼페이우스가 그 반란에 개입하게 되자,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로 결심했고 아리스토틀로스의 정파는 그에 맞서기로 했지만, 히르카누스의 정파는 폼페이우스에게 성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고, 석 달 뒤 예루살렘은 영구히 로마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19절에 이르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이집트가 로마에 의해 정복된다. 이어 20절에서는 다니엘이 그 역사 속에서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할지를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급된다. 21절과 2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23절에서는 배도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라고 선포한 십자가 장면을 묘사하는 절들 바로 뒤이어, 기원전 161년에서 158년 사이에 시작된 그 동맹이 지목된다. 그리스의 종교 철학의 침투에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로마와 불경건한 관계를 맺었던, 마카비로 대표되는 배도한 유대인의 계열은, 그 불경건한 관계의 열매가 완전히 드러난 십자가의 역사를 지적하는 절 다음에 이어진다.

포로 생활 70년 후에 세워진 성전에는 쉼키나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말라기가 선포한 마지막 예언은 기원전 5세기 중엽경에 주어졌다. 마카베오 가문이 세계주의적 그리스의 영향력에 맞서 일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도 예언자들의 증언도 없었다. 그들의 봉기 초기에, 프톨레마이오스와 윗시야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과 똑같은 반역을 그들은 실제로 저질렀다.

요나단 압푸스(또는 요나단 마카베우스로도 알려짐)는 마카베오 반란을 일으킨 마타티아스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셀레우코스 제국에 맞선 유대인의 반란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형제 유다 마카비가 전투에서 죽은 후, 요나단은 마카베오 군대의 지도권을 이어받았다. 그는 군사적·정치적 지도력에 더하여 대제사장의 직분도 맡아, 유대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섬겼다. 지도자이자 대제사장이라는 요나단의 이중적 역할은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모두 하스모니아 왕조 안에 집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지도력은 유대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유대에 하스모니아 통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가 라피아의 승리 후에 시도하였던 바로 그 죄가 마카베오 반란의 맨 처음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윗시야 왕 시대에 제사장들이 맞서 저항하였던 바로

그 동일한 죄였으나,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수호한다는 마카베오의 공언된 변호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 드러낸 잘못되고도 반역적인 표명이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오늘날 바이든의 글로벌리스트적 '워크이즘'의 침투에 맞서 트럼프를 지지하며 집결하고 있는 배도한 개신교의 반역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성경은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마타디아스로부터 시작된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잔존 세력이었다. 마타디아스와 그가 시작한 반란은 바리새주의의 열매를 맺었으며,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배도한 프로테스탄트들 역시 그러하다. 미국이 위대했던 것은 헌법이 교회와 국가를 서로 분리해 두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때였으나, 하누카 절기로 기념되는 승리로 표상된 그 위조된 기적의 때에, 일요일 입법을 위한 운동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지금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진리를 전해 온 사람들은 종종 단순한 위기 조장자로 여겨져 왔다. 미국에서 종교적 불관용이 권세를 잡고,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예언은 근거 없고 터무니없다고 단정되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그래 왔던 대로 종교 자유의 수호자 외의 다른 무엇이 될 리는 결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의 강제 시행 문제가 광범위하게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던 그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이 보이게 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 안의 죄를 꾸짖도록 자신의 종들을 보내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원하고, 순수하고 꾸밈없는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개혁자들은 그들의 사역에 착수하면서 교회와 나라의 죄를 공격하는 데 큰 신중을 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통해 사람들을 성경의 교리로 다시 이끌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배도한 백성의 죄를 책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임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명백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하던 교리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영혼들을 위협하는 위협을 열심히 선포하도록 강권되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으며,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으로 전해질 때가 이르면, 주께서는 겸손한 도구들을 통해 일하시며, 자신을 그의 봉사에 바친 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 기관들의 훈련보다는 그의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러 나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악들이 드러날 것이다. 세속 권력으로 교회의 의식을 강제하는 무서운 결과, 심령주의의 침투, 교황권의 은밀하지만 급속한 진전, 이 모든 것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들로 사람들은 각성될 것이다.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을지라도 귀 기울일 것이다. 그들은 놀라움 속에서 바벨론이 교회이며, 하늘로부터 그녀에게 보내진 진리를 거절하고 그녀의 오류와

죄악 때문에 타락하였다는 증언을 듣는다. 사람들이 열렬한 물음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사실입니까?' 하며 그들의 옛 스승들에게 찾아가자, 목사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고 깨어난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들을 내세우고 듣기 좋은 말만 예언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단지 사람의 권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분명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중적 성직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권위가 의문시되자 분노로 가득 차 그 기별을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 규탄하고, 죄를 사랑하는 무리들을 선동하여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게 할 것이다.

논쟁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짓밟혀 온 하나님의 율법으로 불려질 때, 사탄은 분주히 활동한다. 그 기별에 수반되는 능력은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격노하게 만들 뿐이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자기들의 양떼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억누르려 할 것이다. 교회는 세속 권력의 강한 팔에 호소하며, 이 일에 있어서는 교황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이 연합한다.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려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단호해짐에 따라, 계명 준수자들을 겨냥하여 법이 동원될 것이다. 그들은 벌금과 투옥의 위협을 받을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지위와 기타 보상과 이익이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확고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오류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이는 유사한 상황에서 루터가 했던 바로 그 호소와 같다. 법정에 기소되어 선 이들은 진리를 강력히 변증하고, 그들의 말을 들은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이 진리들을 전혀 알지 못했을 수천 명 앞에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대쟁투, 605, 606.